

피렌체 르네상스와 메디치가 도서관 연구

A Study on the Florence Renaissance and the Medici's Libraries

윤 희 윤 (Hee-Yoon Yoon)*

< 목 차 >

- | | |
|-------------------------|--------------------------|
| I. 서언: 통념에 대한 반역 | III. 메디치가의 문예후원 및 도서관 추적 |
| II. 피렌체 르네상스 및 역사도서관 개관 | IV. 결론 및 제언 |

요 약: 피렌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요람이다. 그것은 중세 인문주의자들의 고대 그리스·로마의 지식문화 탐구, 위대한 군주와 성직자의 문예적 소양과 리더십, 메디치 가문 등의 문화예술 후원, 예술가의 자유분방한 사유와 창의성, 시민의 비판적 의식과 문화적 욕구 등이 조합된 결과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이 고대 필사본과 중세 번역본을 수집하지 않았다면, 도서관을 건립하여 고전을 보존하고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렌체 르네상스는 개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논거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피렌체 르네상스와 역사도서관을 개관한 다음에 메디치가의 고전자료 수집·구성을 분석하고, 메디치 도서관의 건축적 특징과 메타포를 추적하였다. 산 마르코 도서관(미켈로초 도서관), 바디아 피에졸라 도서관, 산 로렌초 도서관(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지진, 화재, 복원, 이관, 압수, 폐쇄 등 무수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피렌체 르네상스의 마중물이자 산실이었다. 특히 코시모·로렌초의 재정 지원, 미켈로초 설계, 니콜리 개인장서를 기반으로 1444년 개관한 산 마르코 도서관은 르네상스 시대의 최초 공용도서관이었다. 그리고 줄리오 주도 하에 1571년 개관한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의 건축적 백미는 '무지에서 지혜로'를 상징하는 미켈란젤로 계단이고, 내용적 진가는 인문주의자 니콜리와 메디치가가 수집한 고대 필사본과 초기 인쇄본이다. 요컨대 피렌체 르네상스를 논할 때 메디치가 장서와 역사도서관은 매우 중시해야 할 포인트다. 고전은 구시대 박제품이 아니라 통시적 기호화이며, 도서관은 인류 지식문화사를 조감하는 망원경이자 지식과 지혜를 창출하는 현미경이기 때문이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면 도서관은 기록을 집적한다. 따라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국내 도서관의 소급장서 개발과 보존에도 긴 호흡과 타임캡슐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피렌체 르네상스, 메디치가, 문화예술 후원, 산 마르코 도서관(미켈로초 도서관), 산 로렌초 도서관(라우렌치아나 도서관)

ABSTRACT: Florence is the cradle of the Italian Renaissance. It i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medieval humanists' exploration of ancient Greek and Roman knowledge and culture, the leadership of great monarchs and priests, patronage of the Medici family, etc., free-thinking and creativity of artists, and critical consciousness and cultural needs of citizens. However, the Florentine Renaissance could not have blossomed unless the Medici family had collected ancient manuscripts and translations, and built libraries to preserve and provide literature. Based on this logical basis, this study outlined the Florentine renaissance and historic libraries, analyzed the collection and composition of favorite books of the Medici family, and trace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metaphors of the Medici libraries, The San Marco Library (Michelozzo Library), Library of Badia Fiesolana, and the San Lorenzo Library (Laurentian Library) were the priming and birthplace of the Florentine Renaissance despite of many difficulties, including earthquake, fire, restoration, transfer, seizure, and closure. In particular, the San Marco Library, which was opened in 1444 based on the financial support of Cosimo de' Medici, Michelozzo's design, and Niccoli's private collections was the first common library in the Renaissance period. And the architectural highlight of the Laurentian Library, which opened in 1571 under the leadership of Giulio (Papa Clemente VII), is Michelangelo's staircase, which symbolizes 'from ignorance to wisdom', and the real value of the content is the ancient manuscripts and early printed books, which were collected by the humanist Niccoli and the Medici family. In short, when discussing the Florentine Renaissance, Medici's collection and historic libraries are very important points. The reason is that the ancient collections were not stuffed products, but syntactic semiotics, and the libraries are telescopes that view the history of human knowledge and culture and microscopes that create knowledge and wisdom. If records dominate memories, libraries accumulate records. Therefore, long breathing and time capsule strategies are also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retroactive books in domestic libraries with a relatively long history.

KEYWORDS: Renaissance in Florence, Medici Family, Patronage of Culture and Arts, San Marco Library(Michelozzo Library), San Lorenzo Library(Laurentian Library)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 논문접수: 2022년 8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8월 26일 • 게재확정: 2022년 8월 3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73-94,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73>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언: 통념에 대한 반역

역사는 객관적 사실의 기록인가, 해석과 각색의 시나리오인가. 독일 관념철학자 헤겔(Hegel, 1970, 83)은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한 서술로 간주하였다. 전자가 객관적 역사(geschichte)라면, 후자는 주관적 역사(historie)다. 그럼에도 역사에는 객관적 사실 자체보다 후세의 주관적 해석과 정치·사회적 맥락이 투영된 경우가 더 많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편견과 왜곡, 대립과 부실이 혼재하는 중세와 르네상스, 메디치가(Medici family)의 역사다.

서양의 중세(476-1453)는 기록의 부재, 야만과 무지, 흑사병,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등을 동원하여 암흑기로 규정된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Petrarch, 1304-1374) 이래 물질적·문화적으로 쇠락한 시대로 인식되어 왔다(Mommsen, 1942, 226-242). 그 연장선에서 등장한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에 헤겔과 베버(Weber) 등이 동조하면서 암흑기는 보편적 중세관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를 제외하면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제국이 각각 그리스·로마 고전을 수집·번역·보존하면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토양 위에서 유럽 르네상스가 발아하였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 역사학자 부르크하르트(Burckhardt, 1860)는 르네상스를 중세와 결별한 근대의 봄(시작)으로 간주한 반면에 네덜란드 미술사학자 하위징아(Huizinga, 1919)는 중세의 대미를 장식한 가을(연장)로 인식하였다.

피렌체 메디치가의 문예후원에 대한 옹호와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전자가 아르노(Arno) 강변의 피렌체를 르네상스 요람으로 격상시킨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극찬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고리대금업으로 축재한 부정적 이미지 세탁, 사회적 적개심 약화, 정치권력 강화 등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인본주의를 해체·왜곡하였다는 시각이다(Gilbert, 2005, 4). 게다가 여러 논저(Arbusto, 2016; Berthoud, 1966; Catitti, 2017; Connors & Dressen, 2010; Cooper, 2011; Hemsoll, 2003; Salmon, 1990; Terry-Fritsch, 2012; Ullman & Stadter, 1972; Wittkower, 1934; 森田義之, 2007; 山本貴子, 2022)에서 메디치가가 수집한 고전과 후원한 도서관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나 장서의 이합집산과 도서관의 우여곡절, 장서와 도서관의 진모를 추적한 연구는 없다. 그럼에도 위키피디아, 여행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은 부정확한 정보로 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상충이 심하고 출처와 논거도 매우 부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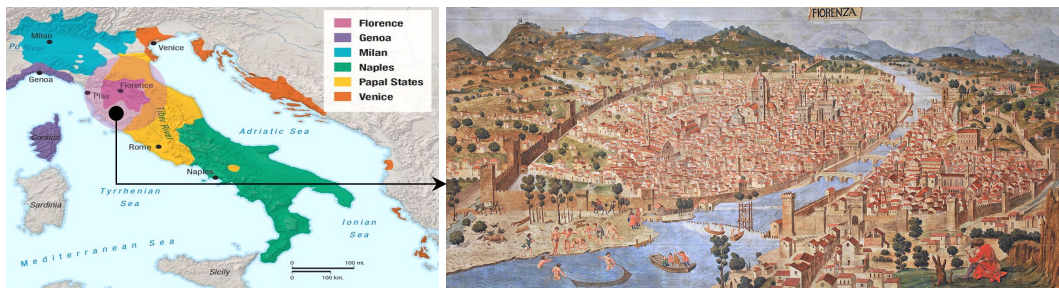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발상지인 피렌체를 중심으로 메디치 명가를 창출한 주역과 군주, 고전 수집과 번역·필사, 애장서 구성과 내용, 그리고 가문이 후원·건립한 도서관의 건축적 특징, 장서 및 도서관의 우여곡절을 추적하고자 한다. 부언하면 피렌체 르네상스와 역사도서관, 메디치가 문예후원에 대한 단편적 사실과 피상적 이해를 넘어 인문학자·건축가·예술가와의 배후적 밀착, 그리스·로마 고전에 집착한 배경과 목적, 고대 필사본 및 초기 인쇄본을 수집·보존한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건립 지원 등을 통해 메디치가 역사도서관의 부침과 성쇠를 추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피렌체 르네상스 및 역사도서관 개관

1. 피렌체 르네상스의 배경과 전개

사계 중 가을은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동시에 혹독한 추위와 인내를 요구하는 겨울과 맞닿아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 르네상스도 중세와의 결별이 아니라 연장이다. 그 모태는 그리스·로마 문화이며, 동방의 신비한 사상이 가미되어 두 갈래로 중세 유럽에 전파되었다. 한 갈래는 여러 시기에 걸쳐 비잔틴에서 서유럽으로의 이동이고, 다른 갈래는 중세 이슬람을 경유한 서유럽 이입이다.

그런데 르네상스는 왜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전사를 보면 남부는 827년 튀니지에서 건너온 이슬람교도가 지배하였고, 북부는 962년 신성로마제국이 통치하였으며, 남동부 연안은 11세기 까지 비잔틴 제국의 땅이었다. 이에 따라 남부는 다민족(라틴족, 그리스인, 아랍인) 문화, 북부는 게르만 문화, 남동부는 비잔틴 문화의 색채가 강하였다. 그러나 11-12세기 유럽 기독교도와 이슬람 교도의 십자군 전쟁 후유증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Heinrich IV)와 제159대 교황 우르바노 2세(Urbano II)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그 후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한 이탈리아가 이슬람·비잔틴의 가교역을 담당하면서 부를 축적함에 따라 여러 도시국가가 출현하고 특유의 도시문화가 형성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는 <그림 1>처럼 인구 10만 명에 달하는 도시 국가가 6개(베네치아, 제노바,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로마 교황청), 인구 25,000-50,000명의 자치 도시(Commune)가 25개 이상이 있었다(Veronesi, 1997, 12).



<그림 1>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좌)와 피렌체

그 가운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요람은 중부 아펜니노 산맥(Monti Appennini)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흐르는 아르노 강변의 꽃의 도시¹⁾ 피렌체(Firenze, 영어 Florence)다. 토스카나 대공국(1569-1574) 및 이탈리아 왕국(1865-1870)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13세기부터 지중해 무역으로

1) BC 1세기 로마가 아르노 강변에 제국의 식민지를 건설할 때 꽃이 만발한 풍경을 본 카이사르(Cesar)가 플로렌티아(Florentia)로 명명한 것에서 피렌체가 '꽃의 도시'로 별칭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상업·경제가 발달하고 직물산업이 번창하여 귀족계급 그란디(grandi, 호족)가 지배하는 7개 대길드(arti maggiori)와 부유한 중산층 상인계급인 포폴로 그라스소(popolo grasso)로 구성된 14개 소길드(arti minori)²⁾가 조직되었다. 대길드 가문은 경제력과 정치력을 앞세워 사회지배를 강화하였고 피렌체의 경제적 풍요, 서유럽 금융허브 및 교역중심지로의 부상에 기여하였다. 1252년 피렌체에서 제조된 서유럽 최초 금화인 플로린(Florin)³⁾이 유럽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함에 13-15세기 재정적 수도로 부상하였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화유산을 배후로 하는 피렌체는 지중해 중개무역과 경제적 풍요, 인구 밀집화, 시민사회 성장, 비잔티움 학자의 대거 유입과 인문주의로의 지적 흐름, 피렌체 시민의 자유분방한 사고와 고전문화 욕구를 기반으로 르네상스가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고전 수집, 아랍어-라틴어 번역서 입수, 메디치가 등 재력가 후원, 문화예술인의 상상력과 열정은 르네상스 발아·개화의 자양분이 되었다. 중세 끝자락에 서사시 『신곡』을 발표한 피렌체 출신의 단테(Durante, 1265-1321)가 초기 인문주의 창시자라면, 아레초(Arezzo) 태생의 페트라르카는 르네상스 선구자다. 『피렌체 연대기』를 쓴 빌라니(G. Villani, 1276-1348),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최후의 심판을 그린 조토(Giotto di Bondone, 1267-1337), 『데카메론』을 저술한 보카치오(G. Boccaccio, 1313-1375), 피렌체 공화정 수장을 역임한 『폭군론』의 살루타티(C. Salutati, 1331-1406), 『피렌체 찬가』로 유명한 브루니(L. Bruni, 1370-1444), 언어문헌학 방법을 확립한 발라(L. Valla, 1407-1457), 『군주론』의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1469-1527) 등이 르네상스를 대표한다. 피렌체 대성당(두오모) 돔을 건축한 브루넬레스키(F. Brunelleschi, 1377-1446), 성 베드로 대성당 돔을 설계한 브라만테(D. Bramante, 1444-1514),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보티첼리(S. Botticelli, 1445-1510), 르네상스 최고 걸작 모나리자(Mona Lisa)를 그린 다빈치(L. da Vinci, 1452-1519), 피에타(Pietà)를 조각한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 아테네 학당을 그린 라파엘로(Raffaello, 1483-1520) 등도 피렌체에서 활약한 천재 예술가들이다.

요컨대 14-16세기 르네상스는 부유한 도시국가 피렌체에서 발아·개화한 후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6세기 초 30년간(1500-1530) 인문주의와 예술문화가 절정에 달한 로마의 하이 르네상스(High Renaissance)⁴⁾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1494년 프랑스의 이탈리아 침공, 1527년 스페인·독일의 로마 약탈, 신대륙·신항로 개척 등으로 지중해 중개무역의 대서양 이동, 종교개혁 반동 등으로 인해 국력이 쇠퇴되고 르네상스도 동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
- 2) 대길드(7개)는 의복·모직·실크·모피·금융·의약사·상인 판사공증인의 길드였고, 소길드(14개)는 옷감·양말·푸줏간·제과·포도주와 청량음료·마구·병기·대장업·열쇠 제작·목공업·투숙업·벽돌과 돌깎기, 그리고 혼합길드(오일, 돼지고기, 로프 제작 포함)였다. 총 21개 길드 아래는 투표권이 없는 노동자로 구성된 72개 유니온이 있고, 그 아래 조직 결성을 금지한 수천 명의 빈곤층 막노동자가 있었다.
 - 3) 금화 플로린(원래 명칭 fiorino, 직경 2cm, 무게 3.5g)의 앞면에는 피렌체를 상징하는 백합꽃, 뒷면에는 피렌체를 수호하는 성 요한(San Giovanni)이 새겨져 있다.
 - 4) 교황청의 수도 로마와 피렌체 등에서 르네상스가 절정에 달한 1495/1500-1520/1527을 말한다. 3대 거장(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끌었으나 라파엘로 사망으로 중지부를 찍었다.

2. 피렌체의 역사도서관 개관

중세 중반부터 유럽의 지식인들은 고대 철학이 신학의 시녀로 전락하자 신본주의 봉건사회에 염증을 느끼며 고전 문화의 부활을 갈구하였다. 그것이 동인으로 작용한 고전 문예부흥이 르네상스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로마의 고전의 발굴과 수집, 해독과 번역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380년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대제(Theodosius, 재위 379-395)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함에 따라 이교도 우상 해체, 아테네 철학아카데미 폐쇄, 그리스 고전 및 도서관 파괴 등이 계속되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톨레도 등으로 떠났고, 6세기-9세기에 유대계 및 아랍학자와 함께 고대 그리스 고전을 아랍어로 번역하였다(Shayegan, 1996, 91). 초기 아랍어 번역본은 스페인계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자'로 칭송되는 아베로에스(Averroes, 1126-1198)의 『Taha'fut Al Taha'fut』(영어 The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이고, 초기 라틴어로 번역한 주역은 톨레도에서 활동한 군디살비(D. Gundisalvi, 1115-1190)이며 파도바의 미란돌라(P.D. Mirandola)·브루노(G. Bruno) 등 르네상스 학자로 계승되었다. 기독교 중심주의가 파괴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약 800년 후인 13세기 유럽으로 귀환하자(Genç & Syed, 2021, 42-43) 인문학자와 부유층은 고전을 수집하고 개인도서관을 만들었다. 중세 신비주의 신학자 위그(Hugo von St. Viktor), 최초 애서가로 1345년 『필로비블리온』(Philobiblion)을 저술한 버리(R. de Bury), 142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필사본 238권을 수집한 이탈리아 역사가 아우리스파(G. Aurispa), 15세기 중반 체세나(Cesena)에 건립된 말라테스티아나 도서관(Biblioteca Malatestiana)에 애장서를 기부한 노벨로(M. Novello)가 대표적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도 동일한 맥락에서 빛바랜 고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발상지 피렌체에서는 군주, 교황, 성직자, 귀족, 학자들이 고대 필사본을 수집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고전에서 지적·문화적 호기심을 채우고 지식과 문화를 확산시켜야 르네상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피렌체 호고주의자(好古主義者) 니콜리(N. Niccoli, 1364-1437),⁵⁾ 인문주의자 겸 책 사냥꾼 포조(Poggio Bracciolini, 1380-1459), 메디치가가 대표적이다. 또한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자 인문주의자·성직자의 엑소더스가 시작되어 많은 학자들이 고대 헬리어(희랍어)·아랍어 필사본, 아랍어 번역본, 라틴어 재번역본 등을 피렌체로 옮겼고 저술과 지식전파로 르네상스 향연에 일조하였다.

따라서 피렌체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다양한 고전 및 도서관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전을 수집·번역·이용하려면 수장공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피렌체에 건립된 많은 역사도서관은 르네상스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주요 역사도서관을 개관하면 <표 1>과 같다.

5) 피렌체 양모업 증산층 출신으로 고대 필사본 수집에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번역·필사와 사본 제작, 주석달기에 몰두하였고, 1397년에는 은행가·정치인 스트로치와 피렌체대학에 고대 그리스어학과를 창설·운영하였다.

〈표 1〉 피렌체의 역사도서관 개관(14-19세기 건립연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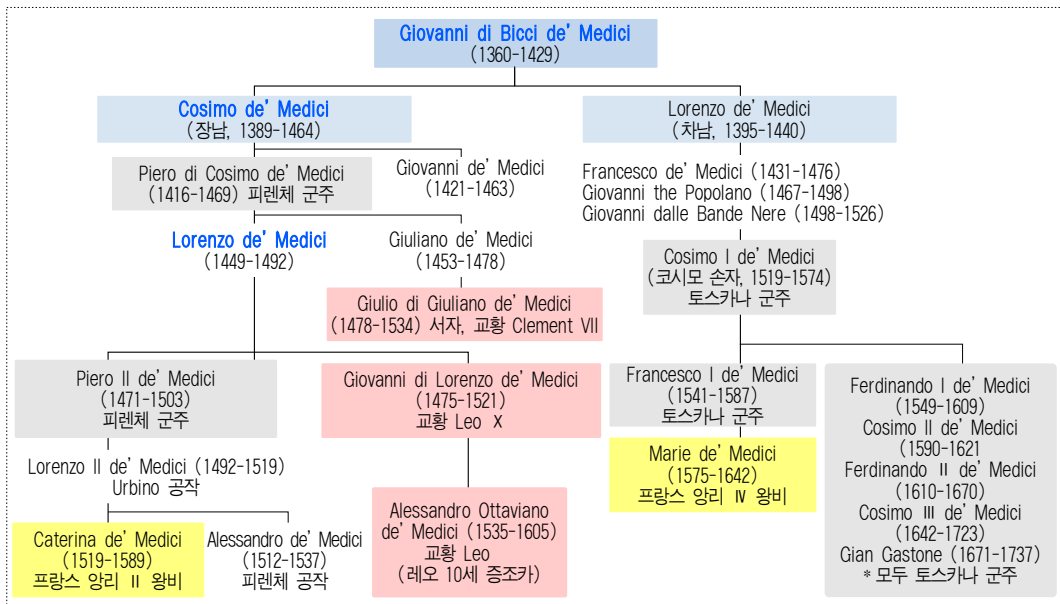
도서관(위치)	연혁과 성격, 장서구성과 특징
Biblioteca Domenicana di Santa Maria Novella (산타 마리아 노벨라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38-1340년 수도사 파사반티(J. Passavanti) 지시로 건립 • 1489년 사르디(Sardi) 목록에는 932종 수록, 1618-1636년 대주교 본치아니(P.F. Bonciani)가 7,000권 기증하였으나 1809년 프랑스에 압수되었고, 1817년 종교공동체로 재편된 후 다시 수집하였으나 1866년 이탈리아 정부가 압수 • 장서: 1952년 개관한 현재 도서관은 40,000권 이상(인쿠나블라 41권, 16세기 인쇄본 350권, 브로슈어 5,000매, 잡지 300종 이상) 소장
Biblioteca di San Marco (산 마르코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44년 미켈로초(Michelozzo) 설계, 메디치가 코시모(Cosimo de' Medici) 후원으로 건립 • 피렌체 르네상스 최초의 개방도서관 • 장서: 니콜리 개인장서(400권)를 기반으로 구성 :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필사본, 메디치가 개인장서, 철학자 미란돌라(Mirandola)·시인 폴리치아노(A. Poliziano) 자료, Codex Atlanticus(1480년), Codex Arundel(1505년경)
Biblioteca di Santa Maria del Fiore (두오모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48년 피렌체 시뇨리아(signoria) 및 양모 길드가 설립 • 1778년 대공 레오폴도(L. Leopoldo)의 명령에 따라 필사본과 인쿠나블라 등이 두오모 오페라(Opera del Duomo)로 이관하였다가 1778년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으로 재이관 • 장서: 현 교회기술학교(Ecclesiastical Boarding School) 도서관과 마르텔리(Martelli) 백작가문의 기증자료를 포함한 9-16세기 필사본 76권 등 4,000종 보존. 대다수가 1517년 피렌체 역사자료 등 토스카나 역사·예술·민속·종교 자료
Biblioteca Medicea-Laurenziana (산 로렌초 대성당 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9-1534년 미켈란젤로 설계, 로렌초(Lorenzo de' Medici) 후원으로 1571년 완공 • 이탈리아 소재 이집트 파피루스 최대 수장고 • 장서: 필사본 11,000권, 파피루스 2,500매, 오스트라카(도기 파편) 43점, 인쿠나블라 66권, 16세기 인쇄본 1,681권, 17-20세기 인쇄본 126,527권
La Biblioteca Riccardiana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 뒤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년 피렌체 공작 리카르디(R.R. Riccardi)가 설립, 1670년 현 위치로 이관, 1715년 일반에 공개, 1812 피렌체시가 나폴레옹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2년 후 토스카나주에 매각 • 중세 많은 필사본을 소장한 토스카나주 공공도서관 • 장서: 필사본(제본) 4,450권, 인쿠나블라 725권, 16세기 인쇄본 3,685권 등 총 63,833권
La Biblioteca degli Uffizi (시뇨리아 광장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4년 학자이자 메디치가 사서 마글리아베키(A. Magliabechi) 유증장서 3만권으로 출범, 1747년 토스카나 대공 레오폴드(Peter Leopold)의 요청으로 대중에게 공개 • 1998년 구 Biblioteca Magliabechiana 18세기 홀에 후신으로 출발, 1935년 BNCF로 이관 • 장서: 1589-1890년 트리부나실(Tribuna Room)의 목록, 예술가·골동품 상인의 편지, 예술가 전기, 박물관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주요 문서 등(도서 78,600종, 필사본 470매, 인쿠나블라 5권, 16세기 인쇄본 192권, 1601-1800년 도서 1,445권, 잡지 1,136종)
La Biblioteca Nazionale Centrale di Firenze (카발리에리 궁전 뒤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4년 건립, 1774년 Biblioteca Magliabechiana·1885년 BNCF로 개칭, 1935년 단행본 이관 • 이탈리아국립도서관(서가 길이 140km, 매년 1.5km 증가) • 장서: 마글리아베키 유증자료 약 3만권을 포함한 인쇄본 600만권(필사본 25,000권, 15세기 초간본 4,000권, 16세기 인쇄본 30,000권, 인쿠나블라 3,716권, 소책자 2,700만매 등)
La Biblioteca Marucelliana (카밀로 카보우르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2년 이탈리아 수도원장·서지애호가 마루첼리(F. Marucelli)의 유지에 따라 건립 • 피렌체 출판물 납본도서관 • 장서: 50만 권 이상(필사본 2천권 이상, 인쿠나블라 약 500매, 서신·문서 1만매 등)
La Biblioteca Moreniana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59년 Accademia della Crusca(이탈리아 언어학·문헌학자협회) 회장 바가지(P. Bigazzi)가 애서가 모레니(D. Moreni) 장서를 구입, 1868년 피렌체 주의회에 매각, 1870년 출범, 1874년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 내로 이전, 1942년 대중에 개방 • 피렌체 및 토스카나주 역사자료 특화도서관 • 장서: 필사본 21,000권, 인쿠나블라 68권, 16세기 인쇄본 1,000권 등

Ⅲ. 메디치가의 문예후원 및 도서관 추적

1. 메디치가의 계보와 문예후원

피렌체 르네상스는 13세기 말부터 바르디(Bardi), 페루치(Peruzzi), 스트로치(Strozzi), 아치아이올리(Acciaiuoli), 피티(Pitti), 알비치(Albizzi), 소테리니(Soderini), 카포니(Capponi), 토르나부오니(Tornabuoni), 도나티(Donati), 살비아티(Salviati), 메디치(Medici) 등 많은 귀족·금융·거상(巨商) 가문의 후원이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실세 가문은 바르디·스트로치·알비치·소테리니, 3대 금융가는 바르디·페루치·아치아이올리였으나 17세기까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명가는 금융(대부·환전) 및 제조업 기반의 메디치가였다.

메디치는 라틴어 medicus에서 유래한 medico(약사)의 복수형이다. 이를 기원으로 하는 메디치가의 주요 계보는 <그림 2>와 같다. 선조는 피렌체 북쪽 무젤로(Mugello)에서 의사나 약제사 또는 염료상 등으로 생활하다가 금융업으로 전환하여 부를 축적한 후 10세기경 피렌체로 이주하였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 후 금융업과 직물업을 통해 중세 유럽의 최대 은행가와 최고 갑부로 부상하였고, 피렌체 공화국을 지배하면서 명가 반열에 올랐으며, 많은 인문주의자 및 예술가를 후원하여 르네상스를 선도하였다. 그 주역은 가문을 창시한 조반니이며, 피렌체를 통치한 장남 코시모와 증손자 로렌초로 계승되었다.



<그림 2> 메디치가 계보

먼저 조반니(Giovanni di Bicci de' Medici, 1360-1429)는 가문의 시조이자 메디치은행 창업자다. 1363년 부친 아베라르도(Averardo de' Medici)가 흑사병으로 사망하자 로마에서 교황청 환전업을 하던 삼촌 비에리(Vieri de' Medici)의 메디치은행에서 경력을 쌓았고 1393년 삼촌 은행을 인수한 후 1397년 피렌체에 본점을 개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메디치은행이 출범하였다(Hale, 1977, 9-20). 14세기 말에는 사업을 직물에서 상업, 부동산, 은행업으로 확장한데 이어 1402년 피렌체 금융업 길드(Arte del Cambio)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세 번(1402, 1408, 14011)에 걸쳐 최고 공직인 프리오리(Priori)를 맡았을 정도로 실질적 참주(僭主)였다. 1414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지기스문트(Sigismund)가 콘스탄츠(Konstanz) 종교회의에서 대립교황(Antipope)⁶⁾ 요한 23세(John XXIII)를 폐위·구금하고 벌금 35,000플로린을 부과하자 조반니는 교황에게 대출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1424년 제206대 교황 마르티노 5세(Martino V)에 의해 교황청 주거대 은행으로 지정된 메디치가의 부는 급증하였다. 그러나 고전 수집이나 도서관 건립을 후원한 기록은 없다. 1429년 2월 20일 장남 코시모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타계한 조반니는 산 로렌초 대성당(Basilica di San Lorenzo)의 구성구실(舊聖具室, Old Sacristy)에 안치되었다.

다음으로 조반니의 장남 코시모(Cosimo de' Medici, 1389-1464)는 은행, 피렌체·무젤로의 토지, 금화 약 18만(또는 179,221, 시가 34조 달러) 플로린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Burckhardt, 1860, 141; Hale, 1977, 14; Staley, 1906, 194)을 기반으로 메디치 은행의 총수, 인문주의자, 피렌체 통치자로 군림하고 왕조시대를 열었다. 유년기에는 아시시(Assisi) 언덕 위의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당(Basilica di Santa Maria degli Angeli) 부설학교에서 신학공부와 인문학적 소양에 필요한 히브리어·라틴어·고대 그리스어·아랍어 등을 습득하였다. 그는 유산을 기반으로 경영·금융 수완을 발휘하여 주요 도시(베니스, 밀라노, 로마, 아비뇽, 런던, 리옹 등)에 은행지점 16개를 개설하고 교황청 은행가, 수입품(향신료, 비단, 설탕, 모피, 염료, 명반 등) 중개로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를 선출하는 시뇨리아(Signoria)⁷⁾를 통제할 정도로 실세였다. 이를 경계한 1433년 가을, 반대파 스트로치·알비치가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베네치아로 추방되었다.⁸⁾ 코시모는 1434년 자신을 환대한 베네치아 시민을 위해 동행한 친구이자 가문의 전속 건축가 미켈로초(B. Michelozzo)에게 요청해 베네치아의 산 조르조 마조레 대성당(Basilica di San Giorgio Maggiore)을 개축하고 도서관을 부설하여 고전(필사본 185권, 인쿠나블라 78권, 인쇄본 4,157권)을 수집·보존하였다. 그것이 피렌체 밖에 건립된 메디치가의 유일한 도서관⁹⁾이다. 1434년 귀환한 코시모는 이듬해 피렌체 명목상

6) 공식 선출된 교황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 교황을 옹립하여 2명이 공존할 때의 후자를 말한다.
7) 길드 대표자 총 9명(메이저 6명, 마이너 2명, 곤팔로니에레)으로 구성된 최고 행정기관이다. 실권자 직명은 시뇨레(Signore), 멤버는 Priori다. 1421년 조반니, 1461년 피에로가 통치자로 선출되었다.
8) 코시모는 파도바(Padova), 동생 로렌초는 베네치아, 사촌 아베라르도(Averardo de' Medici)는 나폴리로 추방되었다. 코시모는 4주간 투옥되었다가 베네치아로 건너가 칩사 대접을 받았다.
9) 1614년 화재로 소실된 후 1641-1653년 건축가 롱게나(B. Longhena)가 신축하여 Longhena library으로 명명하였다. 현재 미술사 관련 자료 10만권을 소장하고 있다.

통치자인 곤팔로니에레(gonfaloniere)에 취임한 후 15년간(1435-1450) 증식한 재산 약 290,791플로린(은행 90% + 양모·실크 10%)(De Roover, 1963, 69)을 기반으로 문예, 건축, 공개 학습포럼을 후원하였다. 그 결과는 시민 인본주의 사상의 밑받침이 되었고, 인문교육과 고전연구를 촉진시켰다. 1462년 코시모는 플라톤 아카데미(Academia Platonica)를 설립하여 헬라어로 기술된 플라톤 저작을 라틴어로 번역하던 철학자 피치노(M. Ficino, 1433-1499)에게 운영 책임을 맡겨 유럽 플라톤 연구의 거점으로 격상시켰으며, 60만 플로린(5억 달러) 이상을 문화예술에 후원하며 피렌체 르네상스를 주도하였다. 또한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 특히 철학서 수집과 번역을 후원하는데 주력하였고(Hankins, 1990, 147), 1444년 산 마르코 도서관(일명 미켈로초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그는 대성당 재정과 장서확충을 후원하다가 1464년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던 카레지 별장(Villa di Careggi)에서 양자로 삼은 피치노 곁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사후 시뇨리아는 법령을 통해 산 로렌초 대성당에 안치된 그의 무덤에 '조국의 아버지'(Padre della Patria)라는 칭호를 새겼다. 그러나 코시모의 장남 피에로(Piero di Cosimo de' Medici, 1419-1469)도 통풍과 지병으로 일찍 숨졌고, 차남 조반니(Giovanni de' Medici, 1421-1463)도 코시모가 사망하기 1년 전 죽었다. 두 아들도 산 로렌초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조반니 증손자이자 코시모 손자, 그리고 피에로의 자식 중 가장 총명한 로렌초(Lorenzo de' Medici, 1449-1492)는 피렌체 르네상스를 가장 열정적으로 후원한 군주였다. 그는 주교 겸 외교관 젠틸레(Gentile de'Beccchi)와 인문주의 철학자 피치노에게 교육을 받았고, 비잔티움 출신의 그리스 철학자 겸 피렌체대학 교수 아르기로폴로(G. Argiropulo)로부터 그리스어를 배웠다. 1469년 부친 피에로가 사망하자 20세에 통치권을 승계한 로렌초는 경쟁가문과의 갈등, 파치가 음모사건(Congiura dei Pazzi),¹⁰⁾ 피렌체 전쟁 등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럼에도 조기 인문학 교육을 바탕으로 철학적 지식을 쌓았고, 모국어뿐만 아니라 5개국 언어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헌학자와 대등한 지식을 갖춘 시인이었으며, 인문예술가와 교류하였다. 르네상스 전성기의 거장들(베로키오,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 갈릴레이, 마키아벨리, 베스푸치 등)을 적극 후원하여 피렌체 르네상스를 절정기로 이끌었다. 조부 코시모가 설립한 산 마르코 도서관 장서확충에도 주력하였다. 수석 북 스카우트 포지오(Poggio Bracciolini, 1380-1459)를 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등에 특사로 파견하여 고전을 수집하였고, 복사본을 필사·제작하여 유럽에 배포하였다(Meehan III, 2007, 15). 그러나 경영·금융에 문외한이던 로렌초는 전문가에게 위임한 지점(런던, 밀라노, 브뤼헤, 베네치아 등)들이 도산하고 피렌체 본점마저 사후 2년(1494년) 파산하자 피렌체 르네상스도 쇠퇴되었고 예술가들도 떠났다. 그럼에도 1737년 토스카나 대공국의 마지막 군주 잔 가스토네(Gian Gastone de' Medici)가

10) 1478년 4월 26일 파치가문 등이 정권 탈취를 위해 피렌체 대성당에서 일요미사 중이던 피렌체 통치자 메디치가 형제에게 기습 살해를 감행하였다. 형 로렌초는 부상을 입고 탈출하였으나 동생 줄리아노는 즉사하였다. 쿠데타에 실패한 파치가는 추방되고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가문의 명칭과 문장 사용도 영원히 금지되었다.

타계할 때까지 메디치가 역사는 계속되었다.

요컨대 메디치가는 세 차례(1433-1434, 1494-1512, 1527-1530) 추방된 시기를 제외하면 약 300년 동안 경제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피렌체를 지배하였다. 금화 플로린을 유럽 기축통화로 만들었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킨 명가다. 예술가를 후원하여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데 기여한 메세나(mecenat)의 표상이다. 그 결과로 등장한 신조어가 메디치 효과(Medici Effect)¹¹⁾다. 가문이 배출한 인물로는 교황 3명(Leo X, Clemens VIII, Leo), 피렌체 공작 1명(Alessandro de' Medici)과 토스카나 군주 7명, 프랑스 왕비 2명(Catherine, Marie)이 있다. 15-18세기 메디치가는 유럽 최고 부자(1,290억 달러, 한화 169조원), 최대 문예 후원자, 피렌체의 지배자·종교 명문가·왕가로서의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최후 직계 후손인 마리아 루이사(Anna Maria Luisa de' Medici, 1667-1743)가 가문의 모든 예술품을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토스카나주 정부에 기증하고 1743년 2월 18일 타계함으로써 메디치가 역사는 종지부를 찍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자 시생멸법(是生滅法)이다. 메디치가 유품은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 2-3층)에 전시되어 있고 외부 기둥의 28개 벽감에는 피렌체를 빛낸 단테, 미켈란젤로, 다빈치 등의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다.

2. 메디치가의 고전 수집 및 도서관

피렌체는 르네상스 요람이자 중세 문화예술의 보고다. 1982년 궁전과 저택, 대성당과 교회, 광장, 건축물과 예술품, 아카데미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이 방증한다. 그 가운데 메디치가의 정신적 중심지인 산 마르코 대성당(Basilica di San Marco)과 산 로렌초 대성당(Basilica di San Lorenzo)은 메디치가의 역사도서관을 품고 있다.

가. 산 마르코 대성당과 미켈로초 도서관

피렌체 대성당(Duomo di Firenze)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산 마르코 대성당은 성당과 수녀원으로 구성된 종교시설 단지다. 현재 수녀원은 1869년부터 산 마르코 국립박물관(Museo Nazionale di San Marco)으로 개칭되었다. 프레스코화 거장 안젤리코(Fra Angelico)가 그린 '수태고지'(受胎告知, annunciation)¹²⁾로 유명해 안젤리코 미술관으로도 회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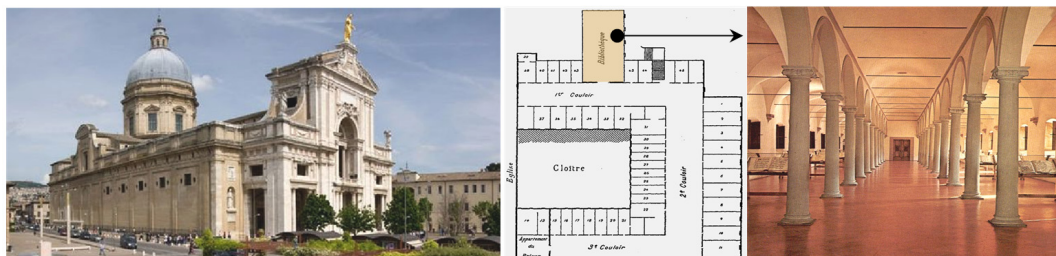
11) 2004년 스웨덴계 미국 작가·기업가·대중연설가로 활동하는 조헨슨(F. Johanson)이 저술한 『메디치 효과』(The Medici Effect)에서 기원한다. 여러 상이한 사고 또는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혁신적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현상, 또는 전혀 상이하거나 다양한 영역이 융합된 창조와 혁신의 백병 현상을 말한다.

12) 구약성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근거로 신약성서 루카 복음서 1장 26-38절에 기술되어 있는 예수 탄생의 일화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을 예고하는 내용이다.

그 모태는 1231년 가톨릭 신부 고졸리니(S. Gozzolini)가 설립한 실베스트린 수도원(Monastery of Silvestrini)이다. 1418년 수도사들이 수도원 규칙을 폐지한 혐의로 폐쇄되었다가 1435년 대형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다. 1436년 수도원은 제207대 교황 에우제니오 4세(Eugenio IV)의 직접 중재와 바젤 공의회(Council of Basel)와의 협약을 거쳐 이듬해 피에조레(Fiesole) 소재 도미니코 수도회 소유가 되었으며, 이어 수도회는 인접한 메디치 저택(Palazzo Medici)의 코시모에게 복합단지를 개조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1429년 피렌체에서 두 번째 갑부였던 조부 조반니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한 코시모는 피렌체 재정을 총괄하는 실세로 부상하였으나, 이를 경계한 토착귀족 알비치가에 의해 1433년 베네치아로 추방되었다가 1434년 귀국하였다. 당시 로마 귀족 콜론나(Colonna) 가문의 위협을 피해 피렌체에 머물던 베네치아계 교황(Eugenius IV)은 피렌체 실세로 복귀한 코시모와 동생 로렌초에게 수도원 개축을 건의하였다. 코시모는 1434년 베네치아 산 조르조 마조레 도서관을 건립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444-1448년 메디치 저택을 개축·확장한 건축가 겸 조각가 미켈로초(Michelozzo di Bartolommeo, 1396-1472)에게 르네상스 양식으로 재건하도록 요청하였다. 1437-1443년 약 40,000 플로린이 투입된 산 마르코 대성당이 건립되고, 1446년 집회실과 식당을 제외한 건물이 완공되었다. 코시모는 27년간 성당의 운영·유지, 가구, 수도사 용품, 성가대, 도서관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였다(Sturm, 1974, 18).

코시모의 재정 지원으로 재건된 대성당은 산 안토니노 회랑(cloister of St. Antonino) 3면을 둘러싼 2층 구조의 3개동이며, 벽면은 흰색 석고로 마감하였다. 동동(東棟) 1층 회랑은 식당, 2층은 북도 양쪽에 수도원장실(22, 31)과 수도사 기숙실(dormitorio) 19개(1-11, 23-30)가 있다. 북동 1층 회랑에는 주교좌성당·참사회실·식당(2개)·숙박실, 기숙실 13개(32-37, 40-45) 및 도서관이 있다. 남동 1층 회랑에는 신도·순례자 휴게소, 2층은 북도 한 쪽에 수도사 기숙실 7실(15-21) 및 교사실이 있다. 서편 끝의 대실(12)은 집회실이며, 인접한 소실 2개(13-14)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대·소실 외 모든 기숙실 벽면에는 안젤리코와 제자들이 '그리스도 생애'에서 발췌해 그린 프레스코화로 채워져 있다.



〈그림 3〉 산 마르코 대성당의 정면(좌)과 도서관(일명 Michelozzo Library)

코시모는 증가하는 메디치가 장서와 여러 수도원에 분산·보존된 고문헌을 수집할 목적으로 새로운 도서관을 구상하였다. 1444년 미켈로초가 설계를 맡은 도서관(Biblioteca di San Marco, 일명 Michelozzo Library)이 성당 1층 북동 회랑에 건립되었다. <그림 3>의 장방형(L 45.1m × W 10.45m) 열람실은 유럽 또는 이탈리아 최초 공공도서관이다(Ingraham, 2015, 150; Meehan III, 2007, 16; Young, 1913, 85). 아치형 천장, 2열 열주에 의해 3부분으로 구획되어 복도가 개방적이고, 자연광이 입사되는 여러 창문이 있어 성당 내에서 가장 뛰어난 공간이다. 특히 독서대(plutei) 64개에 필사본 400권이 배치된 열람실 내부는 밝아 수도사의 연구·독서·필사에 적합하였다. 메디치가 장서, 인문주의자 니콜리 개인장서, 철학자 미란돌라와 시인 폴리치아노 등의 귀중본, 수도사 필사본을 보존하였다. 자료정리 및 목록은 메디치가 사서로 근무하였고 스트로치가 후원을 받은 신학자로서 훗날 '인문주의자 교황'으로 칭송된 파렌투첼리(T. Parentucelli, 1447년 제208대 교황 Niccolò V)에게 맡겼다. 그는 재임 8년간 그리스 필사본 400권 이상을 수집하였고, 인문주의자 발라(L. Valla)를 고용하여 그리스 역사, 이교도·기독교 경전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Bobrick, 2001, 84).

그러나 대성당 도서관이 개관할 때 핵심장서는 니콜리가 아우리스파로부터 구입한 238권을 포함한 총 6,000 플로린 상당의 필사본 800권(그리스어 100권)이었다(Durant, 1953, 76-78). 그 내력을 추적하면 고전주의를 정초한 인물이자 르네상스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니콜리가 고서·동전·메달 등을 수집하는데 재산을 탕진하자 코시모는 은행지점에 니콜리 어음이 돌아오면 이유를 불문하고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파산을 막았다(Strathern, 2007, 83). 1433년 고전을 수집하기 위해 코시모와 로렌초로부터 355 플로린을 빌린 니콜리는 1437년 죽음을 앞두고 코시모에게 파렌체 최대 개인장서의 처리를 유언하였고, 1441년 4월 6일 유언 집행자들은 코시모 요청에 따라 건립 예정인 대성당 도서관에 편입시키는데 동의하였다. 니콜리가 애장서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제시한 주요 유언 조건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Ullman & Stadter, 1972, 7; 山本貴子, 2022, 208).

- 책은 수도사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도사는 장서를 매도하거나 수도원에서 이동하는 것을 금한다. 이러한 조건은 산토 스피리토 수도원(Santo Spirito Monastery)에도 적용한다.
- 재산관리인을 제외한 수도원 밖으로의 대출은 금하며, 대출할 경우에는 1년 내 반납해야 한다.
- 니콜리 유산에서 300 플로린을 수도원의 도서관 건립 및 장서보존을 위해 지불한다.
- 도서관 및 장서를 수리·보존을 위해 관재위원회(board of trustees, 12명)를 구성한다.

이처럼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고서 수집에 몰두한 조반니의 친구 니콜리는 만인개방과 무료 이용을 중시하는 현대 공공도서관의 이념적 선구자다. 특히 마지막 조건인 관재위원회 구성은 도서관 장서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자 공공성 확보를 함축한다. 코시모와 로렌초,

피렌체 수상 3명(Bruni, Bracciolini, Marsuppini)이 포함된 위원회에는 도서관 건립, 장서관리 및 보존, 도서수리·폐기에 관한 결정 권한이 부여되었다. 코시모와 관재위원회는 대성당 도서관에 소장할 니콜리 장서의 관리 및 보존, 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Ullman & Stadter, 1972, 12; 山本貴子, 2022, 209).

- 코시모는 니콜리의 부채 700 플로린을 상환한다.
- 장서 표지에 체인을 부착하는 비용은 코시모가 부담한다.
- 공증인 겸 관재인 중 피에르치(F. Pieruzzi)는 니콜리 장서를 코시모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 사본은 산 마르코 수도사 및 유언집행자가 보관하되, 도서관이 설립되면 벽에 사본을 고정한다.
- 매년 이사 2명은 6개월마다 어떤 책을 대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수도사들은 관재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도서관 책을 제작·폐기할 수 없다.
- 수도사들은 매년 니콜리 장서를 점검하여 관재위원회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누락된 책이 있으면 1년 내 사본을 만들어 배치한다. 수도사가 책의 시기를 기준으로 50 플로린 이상을 분실하면 관재인은 위탁을 해지하고, 코시모는 채권자에게 지불한 금액만큼 반환한다.
- 장서는 니콜리 유산이고 코시모가 보존한다는 대리석 표식을 도서관 벽에 붙인다.
- 도서관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장서를 코시모에게 기탁한다.
- 관재인은 니콜리 장서를 수도사들에게 위탁할 권한을 코시모에게 부여한다.

1441년 4월 수도사들이 니콜리 장서의 이관에 대한 계약조건에 동의하였고, 7월 6일 코시모에게 위탁되었으며, 도서관 건립이 확정되었다. 코시모가 개인 소유로 옮긴 필사본 200권을 제외하고 400권 이상(1100년 이전의 그리스어 필사본 102권, 12세기 라틴어 사본 102권, 기타 중세 자료)을 도서관에 배치하였다(Nelles, 2001, 151). 비극시인 소포클레스(Sophocles, BC 497-406),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460-400),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BC 446-385), 최고 웅변가·라틴어 작가 키케로(Cicero, BC 106-43), 시정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 BC 65-8) 등의 고전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코시모는 니콜리 장서에서 취약한 분야를 보충하기 위해 바티칸 도서관 설립을 주도한 파렌투첼리(교황 니콜라오 5세)에게 요청해 사본지침을 만들었고, 수도사들은 시에나(Siena)와 루카(Luca) 등지에서 다양한 사본을 수집하여 장서에 추가하였다. 이처럼 코시모는 최초로 도서관 자료수집 자금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제공할 장서를 구축하였고, 생애 후반부 18년간 많은 사본을 필사·수집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인문학을 이단으로 간주하는 성직자와 그들의 책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인문학자 11명을 도서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1453년 9월 28일 밤 피렌체 지진으로 도서관은 완파되었다(Meehan III, 2007, 16). 이에 코시모와 아들 피에로가 1457년까지 수리·복원하면서 그리스어 자료실을 추가하였다. 1462-1464년에

는 피렌체 북동쪽에 미켈로초와 브루넬레스키의 설계를 바탕으로 수도원 바디아 피에졸라(Badia Fiesolana) 및 부설도서관 건립도 후원하였다. 코시모는 교황 니콜라오 5세가 작성한 목록을 근거로 인문주의자 라파치니(G. Lapaccini)와 사서 겸 서적상 비스티치(V. da Bisticci)를 통해 산 마르코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특히 비스티치는 필사생 45명을 고용하여 22개월 내에 약 200권을 필사·보존하였다(Jackson, 1921, 14). 1464년 8월 1일 코시모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손자이자 피에로의 장남인 로렌초가 고전 수집에 몰두하였다. 그는 그리스 학자 라스카리스(J. Lascaris)¹³⁾에게 도서관장을 맡겼으며, 라스카리스는 1492년 콘스탄티노플, 지중해의 크레타섬, 마케도니아의 테살로니키(Thessaloniki)와 아토스산(Mount Athos) 등에서 고대 사본 200권 이상을 수집하였다. 그 해 로렌초는 죽었고, 1494년 프랑스 샤를 8세(Charles VIII)가 피렌체를 침공하자 로렌초의 장남 피에로(Piero di Lorenzo de' Medici)가 비굴하게 항복한데 따른 시민 폭동으로 11월 9일 메디치가는 베네치아로 망명하였다. 저택과 재산은 몰수되었고, 필사본 1,136권은 도난당했으며, 나머지는 산 마르코 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1500년 바티칸 도서관장 아치아이올리(Z. Acciaiuoli)가 작성한 장서목록에는 1,232종이 포함되어 있었다(Garin, 1990, 57-120). 로렌초의 차남 조반니(Giovanni di Lorenzo de' Medici)는 메디치가 일족과 함께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생활하다가 1500년 5월 로마로 복귀해 마다마 궁전(Palazzo Madama)에 머물렀으며, 1513년 교황(레오 10세)에 서임된 후 필사본 등 1,016권(431 권은 그리스 자료)을 로마 저택으로 옮겼다(Connors & Dressen, 2010, 212-214). 1523년에는 피에로 차남 줄리아노의 서자 줄리오(Giulio di Giuliano de' Medici)가 교황 클레멘스 7세에 서임된 후 메디치 장서 약 1,200권을 피렌체로 돌려보냈다(Catitti, 2017, 386). 그리고 대다수 필사본은 1571년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산 로렌초 대성당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으로, 초기 인쇄본 등은 1714년 건립된 피렌체국립중앙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Centrale di Firenze)으로 이관되었다. 1808년 토스카나를 침공한 나폴레옹이 대성당을 약탈하고 남은 장서를 압수함에 따라 현재 산 마르코 국립박물관 내 도서관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요컨대 피렌체 르네상스의 정초를 놓고 확산시킨 산 마르코 도서관은 2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하나는 공용도서관(common library)이었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현대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수도사, 신도, 학자로 제한되었고, 그 기반은 엘리트 계층이었다(Terry-Fritsch, 2012, 237). 다른 하나는 권력자 메디치가의 공적 후원 하에 고대 사본(1만 점 이상)과 파피루스 사본 등을 수집·보존하였다. 많은 필경사를 고용해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필사하고, 유럽 은행지점을 통해 그리고 비잔티움·오스만제국까지 특사를 보내 아리스토텔레스, 역사가 리비우스(T. Livius), 저술가 플루타르코스(L.M. Plutarchus), 시인 베르길리우스(P. Vergilius)와 오비디우스(P. Ovidius), 극작가 플라우투스(T.M. Plautus), 로마의 키케로와 세네카(L.A. Sene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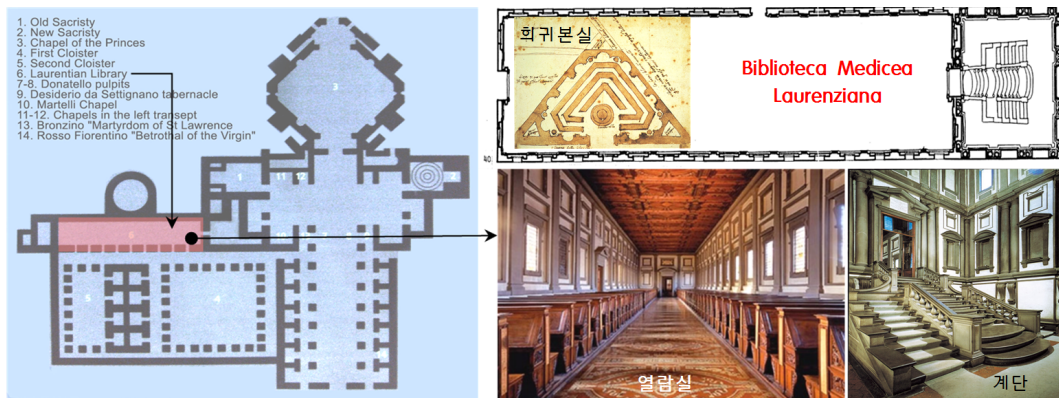
13) 동로마 제국을 계승한 니케아 제국(Empire of Nicaea)의 그리스 명문가 출신으로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이 폐망 후 베네토주 파도바(Padua)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다가 1472년 메디치가 초청으로 피렌체로 갔다.

수사학자 키타리야누스(M.F. Quintilianus) 등의 고전과 중세 교부·교회학자 종교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은 고대 그리스·로마 지식문화의 보고로서 르네상스 기풍 및 개화의 정신적·사상적·학문적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 신학자 및 인문주의자의 지적 공간이었으며, 수십 년간 메디치가 장서의 본거지였다.

나. 산 로렌초 대성당과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메디치가 저택 뒤 피렌체 중앙시장 지구에 위치하는 산 로렌초 대성당은 르네상스 건축사의 이정표로 간주되고 있다. 메디치가 본당일 뿐만 아니라 가문을 창시한 조반니부터 코시모 3세(Cosimo III de' Medici, 1642-1723)에 이르는 인물이 안치된 복합 종교시설이다.

그 역사는 메디치가 대부 조반니가 1419년 브루넬레스키에게 의뢰하여 1421년 착공하고 1446년 완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대성당은 <그림 4>와 같이 회랑, 메디치 예배당(Cappelle Medicee), 성구실(聖具室, Sacristia), 라우렌치아나 도서관(Biblioteca Laurenziana),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장식과 조각상은 도나텔로(Donatello, 1386-1466), 우측 메디치 예배당은 바로크 건축가 니게티(M. Nigetti, 1570-1648), 1428년 완공된 구성구실은 브루넬레스키, 신성구실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하였다. 메디치 예배당과 연결되는 뒤편에는 메디치가 영묘(코시모의 부친과 본인, 아들과 손자)가 있다.



<그림 4> 산 로렌초 대성당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2층)

메디치가 후원 하에 피렌체에 두 번째로 건립된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일명 Michelangelo's Laurentian Library)은 피렌체 통치자 로렌초의 조카이자 피에로의 차남 줄리아노(Giuliano de' Medici)가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행한 인물은 줄리아노 서자(로렌초의 사촌 동생)로 1523년 제219대 교황(Clemente VII)에 서임된 줄리오다. 그는 1524년 1월 선대 코시모와 로렌초가 수집한 모든 장서를

군집·보존하기 위해 양자로 입양한 미켈란젤로에게 설계를 맡겼고, 산 마르코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설계하였다(Hibbard, 1974, 214). 총 12,000 플로린이 투입된 도서관은 1525-1526년 전실(前室: vestibule 또는 ricetto) 및 독서실 전체의 구조가 완성되었다(Argan & Contardi, 1993, 187-188). 그러나 1534년 줄리오가 선종한 후 로렌초 2세의 서자로 피렌체 초대 세습공작을 역임한 알레산드로(Alessandro de' Medici, 1510-1537)와의 갈등을 이유로 미켈란젤로는 11월 로마로 떠났기 때문에 도서관 건축을 총괄하지 않았다. 테라코다 바닥(1549-1554)은 트리볼로(N. Tribolo), 천장 조각(1549-1550)은 타소(G.B. del Tasso)·지아노(A. di M. di Giano), 창문(1558-1568)은 바사리(G. Vasari), 계단(1559)은 아마나티(B. Ammannati)가 맡아 도서관 건립을 의뢰한 교황 사후 37년, 설계한 미켈란젤로 사후 7년인 1571년 6월 전실 내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개관하였다. 당시 미켈란젤로의 걸작품은 조각(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의 다비드상), 회화(로마 시스티나 경당 최후의 심판), 건축(캄피돌리오 광장)이었다. 그럼에도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마니에리스모(Manierismo)¹⁴⁾ 양식을 대표하는 미켈란젤로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다.

산 로렌초 대성당 남쪽의 기존 수도원 회랑 2층에 위치하는 도서관은 총 3개 공간(전실, 열람실, 회귀본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실은 도서관을 입구 홀이자 2층 열람실을 이어주는 계단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원래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모형을 미켈란젤로가 변경·재구성하였고 1558년 미켈란젤로가 보낸 점토모형을 기반으로 1559년 아마나티가 완성한 도서관 건축의 백미다. 소위 미켈란젤로 계단(L 10.5m × W 10.5m × H 14.6m)의 바닥은 토스카나 지방의 회색 사암을 사용하여 3개열로 계획하였다(Lotz & Howard, 1995, 91-94). 중앙 열의 계단은 오직 교황의 승천(ascension)을 위해, 좌우 계단은 피렌체 인문학자와 대중을 위해 만들었다(Arbusto, 2016, 23). 난간이 없는 좌우 열의 계단은 직각이고, 난간을 둔 중앙 열은 15개(하단 3개, 중단 7개, 상단 5개) 계단으로 구성하였으며, 하단이 중단 및 상단보다 약간 넓은 타원형이다.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밝아지도록 설계한 것은 '동굴의 우화'(Allegory of the Cave)¹⁵⁾를 연상케 한다. 메디치 가문이 부지런히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둠(무지)에서 광명(지혜)으로, 환상에서 현실로, 모호에서 명료로 지향해야 한다는 미켈란젤로의 메타포다(DeSanctis & Trautman, 2002). 도산서원 중앙 계단의 좌우에 건립된 서고가 광명실(光明室)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 로렌초 도서관 계단을 오르며

14) 이탈리아어 마니에라(maniera, 양식)에서 유래한 마니에리스모(영어 mannerism)는 1520년부터 17세기 초까지 지속된 르네상스 예술사조다. 밀폐된 공간, 기이한 인체비례, 수학적 엄정함 이탈, 불명료한 구도, 원색적 색채, 빛의 비현실적 묘사, 전통과 보편을 벗어난 독자적 해석 등이 특징이다.

15) 플라톤은 『국가론』(The Republic, BC 517년) 제7권에서 철학의 중심개념인 이데아(Idea)를 '동굴의 우화'에 비유하였다. 동굴 속에서 수족이 묶이고 목이 고정된 채 벽만 볼 수 있는 죄수들 뒤에 거대한 햇불이 있고 그 사이에 물체가 있으면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죄수들이 본 것은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듯이 참된 철학자는 그림자가 아닌 실재, 즉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지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금강경』(金剛經)의 사구계(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존재하는 상(현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현상이 상(본체)이 아님을 안다면 곧 여래(법성, 진리)를 본다)도 동일한 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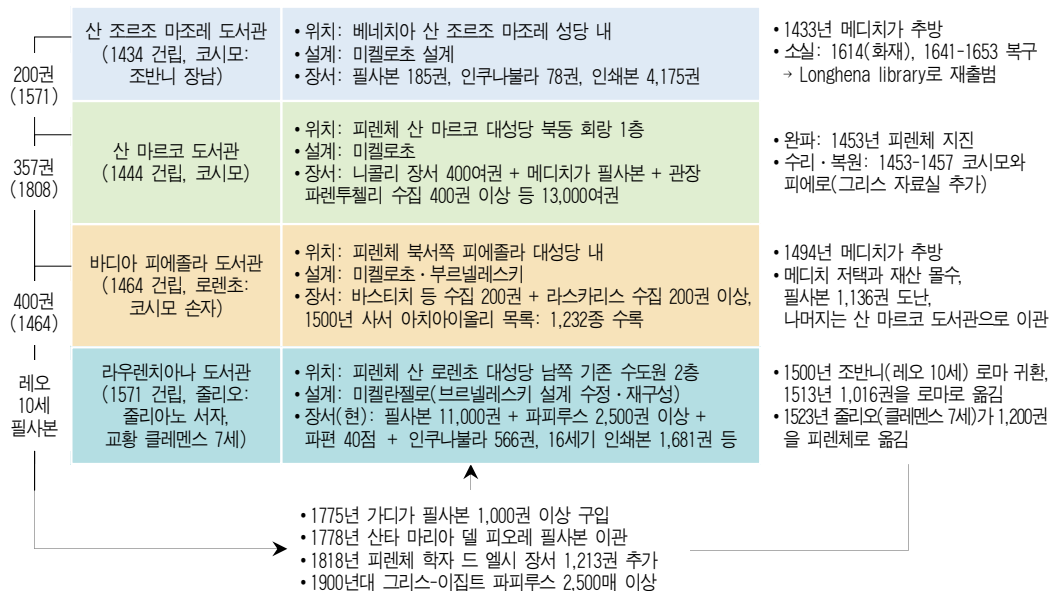
장방형 열람실(L 46.2m×W 10.50m×H 8.4m)이 나오는데 통로 양쪽에 호두나무로 제작된 2인용 독서대 80개는 단순하지만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독서대 맞은 편에는 쇠사슬로 묶은 고전을 배치하였고 통로 쪽 독서대 옆면에 목록을 부착하였다. 열람실 우측의 회귀본실은 당시 건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황이 내부 채광창을 설계한 미켈란젤로의 아이디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Cooper, 2011, 82). 19세기에 로마 판테온 신전(Pantheon Temple) 돔을 모방하여 증축한 것으로 삼각형 구조다. 천장은 개방형이어서 태양 이동에 따라 내부 밝기가 수시로 변한다.

더욱 주목할 키워드는 인문주의자 필사본을 모체로 구성된 장서다(Ullman & Stadter, 1972, 105-267). 1462-1464년 코시모가 바디아 피에졸라 도서관에 기증한 니콜리 장서의 나머지 절반(400여 권), 산 조르조 마조레 도서관에 보냈던 장서(200권)가 추가되어 개관할 당시 약 10,500권에 달하였다. 은행가 사세티(F. Sassetti), 인문주의자 필렐포(F. Filelfo)의 개인장서, 메디치가가 수집한 필사본(6세기 시리아 성경, 최초 라틴어 성경,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저작 등)과 초기 인쇄본이 있었다. 1549년에는 방계가문 출신의 코시모 1세(Cosimo I de' Medici, 피렌체 2대 군주)가 매입한 피티궁전(Palazzo Pitti) 팔라티나 도서관(Biblioteca Palatina)에 보관한 자료도 추가되었다. 지구상에 3세트만 존재하는 플라톤 대화편(Plato's dialogues, BC 428-328), 로마 시성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 BC 70-19) 코덱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dex Justinianus), 공화정 말기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 BC 65-8) 서간시, 라틴어 불가타 성서(Codex Amiatinus), 시인 단테 작품(약 100편), 보카치오 『데카메론』 복사본, 인문주의자 살루타티(F. Salutati) · 브라치 오리니(P. Bracciolini) · 피치노 · 미란돌라 등의 개인장서, 조각가 · 화가 · 음악가 셀리니(B. Cellini)의 자서전, 교황 레오 10세가 입수한 필사본도 함유하였다. 매우 특이한 점은 회귀본실에 명대 숭정(崇禎, 1628-1644) 때 간행된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 전 30권 중 14권까지), 만력(萬曆, 1573-1620) 때 부춘당(富春堂)이 간행한 『대관본초』(大觀本草, 권23), 명대 말기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 전 8권 중 5-8권) 등이 수장되어 있다. 특히 숭정 6년(1633) 충의당(忠義堂)이 발간한 『신선험병명조삼춘연의대전』(新選合併明朝三春演義大全)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진서(珍書)다(高田時雄, 2001, 5).

1571년 개관한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그림 5>처럼 무수한 정성과 곡절을 함축하고 있다. 16-18세기 관장직을 수행한 인물¹⁶⁾ 중 초대 발디니(B. Baldini)는 메디치가 토스카나 대공 코시모 1세의 주치의였으며 메디치 가문, 여러 성당, 수녀원 등의 도서관을 조사한 목록을 발간하였고

16) 연대별 관장은 초대 1571-1589년 Baccio Baldini(메디치가 御醫·內醫), 1589-1604? Baccio Valorie(피렌체 지도자·Accademia del disegno 교장)과 Giovanni Rondinelli, 1604-1642 Alessandro de' Medici(15년 공백, 피렌체 공작·메디치가 직계 최후의 남성 후손), 1657-1699 Orazio Ricasoli Rucellai(이탈리아 철학자·과학자), 1741-1756 Anton Maria Biscioni(역사가·문헌학자·La Crusca 회원), 1757-1803 Angelo Maria Bandini(피렌체 가톨릭 신부·작가·서지학자)가 맡았다.

(Meehan III, 2007, 17), 1589년 공동 관장직을 수행한 론디넬리(G. Rondinelli)와 발로리(B. Valori)가 작성한 목록에는 핵심장서 약 3,000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세기 이상 정체상태에 있다가 1755년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 1세(Francesco I)의 명령에 따라 가디가(Gaddi family)로부터 구입한 필사본 1,000권 이상이 편입되었다(Catitti, 2017, 411). 1757년에는 관장으로 임명된 반디니(A.M. Bandini)가 1803년까지 48년간 봉직하면서 장서를 확장하고 3,000권이 넘는 필사본의 언어별 목록(그리스어 3권 1764-1770, 라틴어 4권 1774-1777, 이탈리아어 1778)을 편찬하였다(Chapron, 2004, 71). 1778년에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도서관의 필사본도 합류되었다. 이들은 1783년 피티궁전 내 팔라티나 로레네세 도서관(Biblioteca Palatina Lorenese)으로 옮겨졌다가 1808년 산 마르코 대성당 마르시아나 도서관(Biblioteca Marciana)과 합병되어 메디체아 라우렌치아나 도서관(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으로 개칭되었다. 1809년에는 산 마르코 도서관 필사본 357권, 1818년에는 피렌체 학자·서지가 드 엘시(A.M. d'Elci)의 그리스·라틴 고전 1,213권, 1883년에는 다시 산 마르코 도서관 코텍스 357권, 1900년대는 그리스-이집트 파피루스 2,500매 등이 추가되었다. 현재 장서는 고대 필사본 11,000권(핵심 필사본 약 3천권), 파피루스 2,500매 이상, 향아리 파편(ostraka) 43점, 초기 인쇄본 566권, 16세기 인쇄본 1,681권을 포함하여 총 126,527권을 상회한다. 그 가운데 메디치가 장서는 메디치 팔이 양각된 적색 가죽으로 제본·구분하고 있다. 인문학자, 과학자, 예술가 등은 역사도서관에서 고전을 읽고 피렌체 르네상스에 인문·예술의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림 5〉 메디치가 장서 및 도서관의 이합집산 전모

요컨대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위대한 고전 수집가이자 15세기 말 메디치 도서관을 크게 확장한 로렌초(일명 Lorenzo il Magnifico)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그것은 천재 건축가 미켈란젤로와 후원자 교황 클레멘스 7세의 합작품이고, 반평생 관장직을 수행한 반디니가 목록을 작성하고 장서를 확충한 결과다. 르네상스 지식문화사적 중요성은 중세도서관 건축의 백미이자 '무지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미켈란젤로 계단, 메디치가에서 수집·보존한 고대 파피루스·양피지 필사본, 초기 인쇄본의 보고, 르네상스 후기 베네치아·로마·밀라노 등 대도시 도서관 건립·운영의 전범이 되었다는데 있다. 현재 국가(문화유산활동부) 소유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역사도서관인 동시에 피렌체 공공 도서관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탈리아가 유럽 르네상스의 거점이라면, 피렌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요람이다. 애서가·인문학자의 고전 수집과 탐구, 군주·성직자의 인문학 소양, 메디치가 등의 문예 후원, 천재 인문예술가의 창의성, 시민의 비판적 사고와 문화예술 욕구 등이 어우러진 문예코드다.

그 토양 위에서 고전의 재해석 및 감수성이 창출한 피렌체 르네상스는 후대에도 계속되었다. 1890년 차이콥스키(P.L. Tchaikovsky)가 작곡한 현악 세레나데(라단조 70)가 '플로렌스의 추억'(Souvenir de Florence)이다. 1901년 헤세(H.K. Hesse)는 시 '북쪽에서'(Im Norden) 피렌체를 '두고 온 행복'(Muß das Glück noch)으로 묘사하였다. 1980년 에코(U. Eco)가 발표한 『장미의 이름』(Il nome della rosa)은 아펜니노 베네딕트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지적 추리소설이다. 1999년 가오리(江國香織) 소설을 영화화한 '냉정과 열정 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도 피렌체 배경의 러브 스토리다. 2001년 'Melodrama'를 부른 시각장애인 팝페라 가수 보첼리(A. Bocelli)도 피렌체 라야티코(Lajatico) 출신이다. 모두 피렌체 문화예술의 유산이다.

그럼에도 피렌체 르네상스 개화의 뿌리와 줄기는 인문주의이고, 자양분은 메디치가 문예후원이며, 마중물과 저수지는 빛바랜 고전과 도서관이었다. 서로마 멸망으로 단절되었던 고전 지식과 문화는 비잔틴 및 아랍 제국의 번역으로 부활하였고 피렌체에 역수입되었다. 수도사, 군주, 학자, 명가 등은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발굴·수집한 후 번역·중역하여 보존하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지적 보고가 수도원도서관, 궁정도서관, 학자·군주의 개인도서관, 부유층 가문도서관이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고전의 헬라어 필사본, 로마의 라틴어 번역본, 중세 이슬람의 아랍어 번역본, 비잔티움 제국의 라틴어 재번역본이 없었다면, 인문학적 탐구와 문예적 장인정신이 조합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메디치가 등이 막대한 경제력·종교적 지배력·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전 수집과 도서관 건립을 후원하지 않았다면, 피렌체 르네상스는 지적·문화적 자양분 부족으로 만개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가운데

메디치가가 후원·건립한 산 마르코 대성당 도서관(미켈로초 도서관), 바디아 피에졸라 수도원 도서관, 로렌츠 대성당 도서관(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지진, 화재, 복원, 이관, 압수, 폐쇄 등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피렌체 르네상스의 모태이자 산실이었다. 수집·보존된 고전과 번역본은 박제품이 아니라 고대를 반추하고 중세를 성찰하는 오브제(objet)였고, 도서관은 고대 거울에 반사된 지적 세계를 조감하는 망원경인 동시에 중세 렌즈에 투과시켜 인문주의를 재창출하는 현미경이었다.

요컨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 자료를 수장한 도서관은 그 자체가 역사를 대변한다. 전쟁과 폐쇄, 금서와 분서, 방화와 약탈 등 무수한 비블리오코스트(bibliocaust)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장구한 지식문화사를 보존하여 왔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단순한 수장고가 아니다. 세월을 두고 숙성되면 타임캡슐이 되고 지식문화 아이콘으로 격상된다. 따라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국내 도서관에서 소급장서를 개발·보존할 때도 역사의식과 긴 호흡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Arbusto, K. (2016). The materiality of wood in Michelangelo's Biblioteca Laurenziana: the Laurentian Staircase, *Art & Art History*, 3. Available: https://scholarsarchive.library.albany.edu/honorscollege_finearts/3
- Argan, G. C. & Contardi, B. (1993). *Michelangelo Architect*. New York: Harry N. Abrams.
- Berthoud, J. (1966). The Italian Renaissance library. *Theoria: A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26, 61-80.
- Bobrick, B. (2001). *Wide as the Waters*. New York: Simon & Schuster.
- Burckhardt, J. (1860). *Die C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 ein Versuch*. Vol.1. Basel: Schweighauser.
- Catitti, S. (2017). The Laurentian library: patronage and building history. In Gaston, R.W. and Waldman, L.A. eds. *San Lorenzo: A Florentine Church*. Florence: Villa I Tatti, 382-426.
- Chapron, E. (2004). Le métier de bibliothécaire au XVIIIe siècle: Angelo Maria Bandini à Florence(1726-1803). *Revue d'Histoire Moderne & Contemporaine*, 51-2, 58-87.
- Connors, J. & Dressen, A. (2010). Biblioteche: l'architettura e l'ordinamento del sapere. In Calbi, D. & Svaduz, E. eds. *Il Rinascimento Italiano e l'Europa*, Vol. 6: *L'Architettura del Rinascimento in Italia*. Treviso: Fondazione Cassamarca, 199-228.
- Cooper, J. G. (2011). *Michelangelo's Laurentian library: drawings and design process*.

- Architectural History, 54, 49-90.
- De Roover, R. (1963).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edici Bank, 1397-1494*.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eSanctis, M. E. & Trautman, D. W. (2002). *Building from Belief*.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 Durant, W. (1953). *The Renaissance: The Story of Civiliza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Garin, E. (1990). *La Biblioteca di San Marco*. Firenze: Le lettere.
- Genç, S. Y. & Syed, H. (2021). The Medici's influence: revival of political and financial thought in Europe. *Bellekten(Türk Tarih Kurumu)*, 85(302), 29-51.
- Gilbert, K. A. (2005). Medici power and patronage under Cosimo the Elder and Lorenzo the Magnificent. *Senior Honors Theses and Projects*, 103. Available: <https://commons.emich.edu/honors/103>
- Hale, J. R. (1977). *Florence and the Medici*. New York: Thames and Hudson Inc.
- Hankins, J. (1990). Cosimo de' Medici and the Platonic Academy.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53, 144-162.
- Hegel, G. W. F. (1970).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Weltgeschichte*. Bd.12. Frankfurt/M: Suhrkamp Verlag.
- Hemsoll, D. (2003). The Laurentian library and Michelangelo's architectural method.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66, 29-62.
- Hibbard, H. (1974). *Michelangelo*. Boulder: Westview Press.
- Huizinga, J. (1919). *Herfsttij der Middeleeuwen*. Haarlem: Tjeenk Willink.
- Ingraham, C. (2015). Libraries and their Publics. *Rhetoric Review*, 34(2), 147-163.
- Jackson, T. G. (1921). *The Renaissance of Roman Architecture, Vol. 1: Ita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tz, W. & Howard, D. (1995). *Architecture in Italy, 1500-16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eehan III, William F. (2007). The importance of Cosimo de Medici in library history. *Indiana Libraries*, 26(3), 15-20.
- Mommsen, T. (1942). Petrarch's conception of the 'Dark Ages'. *Speculum*, 17(2), 226-242.
- Nelles, P. (2001). Renaissance Libraries, In Stam, David H. ed. *International Dictionary of Library History, Vol.1.1*. Chicago: Fitzroy Dearborn Publishers, 151-155.

- Salmon, F. (1990). The site of Michelangelo's Laurentian librar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49, 407-429.
- Shayegan, Y. (1996). The transmission of Greek philosophy to the Islamic world. *History of Islamic Philosophy*, 1, 89-104.
- Staley, E. (1906). *The Guilds of Florence*. London: Methuen & Company.
- Strathern, P. (2007). *The Medici: Godfathers of the Renaissance*. London: Vintage.
- Sturm, S. (1974). *Lorenzo de'Medici*. New York: Twayne Publishers.
- Terry-Fritsch, A. (2012). Florentine convent as practiced place: Cosimo de'Medici, Fra Angelico, and the public library of San Marco. *Medieval Encounters*, 18, 230-271.
- Ullman, B. L. & Stadter, P. A. (1972). *The Public Library of Renaissance Florence: Niccolò Niccoli, Cosimo de'Medici and the Library of San Marco*. Padova: Editrice Antenore.
- Veronesi, G. (1977). *Italian Americans and Their Communities of Cleveland*. Cleveland: Cleveland State University.
- Wittkower, R. (1934). Michelangelo's Biblioteca Laurenziana. *The Art Bulletin*, 16(2), 123-218.
- Young, G. F. (1913). *The Medici*. Vol. I. New York: E.P. Dutton & Company.
- 高田時雄 (2001). イタリアにおける漢籍の蒐集. *東方*, 244/245, 2-6.
- 山本貴子 (2022). ユネスコ「世界の記憶」ヨーロッパ最古の公共図書館の成立. *真宗総合研究所研究紀要*, 39, 201-213.
- 森田義之 (2007). イタリア・ルネサンス期の図書館とメディチ家のパトロネージ. *愛知県立芸術大学紀要*, 37, 51-67.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Takata, Tokio (2001). Collection of Chinese books in Italy. *Eastern book review*, 244/245, 2-6.
- Yamamoto, Takaco (2022). UNESCO memory of the world: establishment of the oldest public library in Europe: 15th century Italy and Medici libraries. *Annual memoirs of the Otani University Shin Buddhist Comprehensive Research Institute*, 39, 201-213.
- Yoshiyuki, Morita (2007). La prime biblioteche pubbliche e il mecenatismo mediceo nel Rinascimento Italiano. *The Bulletin of Aichi University of The Arts*, 37, 51-67.